

<제7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대상)>

도서명	고도를 기다리며
저자	사뮈엘 베케트
제목	틀린 삶의 방식은 없다.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고뇌는 나에게 체화되어 있다. 여태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이에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경험과 감정, 관계가 남아있다. 해보지 못한 생각을 타인의 표현으로 접하는 것은 흥미롭고 각기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나의 세상을 넓게 만든다. 이 책은 나에게 체화된 근본적인 질문을 겨냥했고 제법 긴 시간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주인공인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기다린다는 게 책의 전부이다. 등장인물도 겨우 5명. 배경도 하나다. 이렇게 단출한 이야기가 결국은 독자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생각할 거리가 많고 독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었고 나만의 해석을 할 수 있기에 매력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두 주인공은 나무 앞에서 고도를 만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히 고도가 오기로 한 것인지, 왜 만나는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몇십 년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들이 고도에게 한 부탁은 일종의 기도이며 막연한 탄원이라고 언급됐다. 고도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미래가 달린 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두 주인공은 아쉬운 기색 없이 익숙한 것처럼 내일을 기다린다. 직접 고도를 찾아가지도 않고(애초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나무 앞에서 그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답답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떠한 돌파구가 될만한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던 나를 생각했다. 나조차 확실히 원하는 미래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의미 없는 일을 했다. 마치 주인공들이 실속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죽이듯이 말이다.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해석은 불확실한 무언가를 구원 시 여기는 마음이다. 반드시 미래에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 변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는 애처로움.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 반드시 그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생이 끝날 것처럼. 하지만 그들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지금의 삶을 바꿀 어떠한 소망만을 가지고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블라디미르는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올 땐 말을 몰고 올 것이라 했다. 오로지 그의 상상만으로 생긴 그는 과연 말을 몰고 올까? 그리고 정말 고도는 그들을 구원해줄까? 불확실성의 위협을 오히려 희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애매한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가능성에 심취한 지망생. 수능 한 번을 위해 몇 년의 청춘을 바치는 n수생.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중독성이 강하다. 현재의 자신에게 미래의 희망은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은 불확실한 미래를 구원 시 여기며 희망에 중독됐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린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우린 꿈꿈 묶여 있는 게 아닐까?” “아직은 안 그렇다.”. 몇십 년을 고도를 기다리기를 반복하고 습관이 되었는데도 고도에게 묶여있는 게 아니란다. 그것도 ‘아직은’. 그들은 묶여 있다기보다 스스로 매달려있는 것 같다. 습관이 접착제가 되어 아주 끈끈하게 매달려있다.

방랑자와 방황자. 책에 실린 작품 해석에서는 두 주인공을 방랑자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인생의 방황자다. 둘 다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뜻에서는 같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인생에 있어 방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이리저리 배회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고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가치관이 형성되고 돌아갈 곳이 생긴다. 반면, 방황하는 자는 그 어떤 좋은 것을 맞닥뜨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방황자로 인생을 산다는 건 꽤 슬픈 것이다. 두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길은 좀 헤맸더라도 인생의 방황자는 탈출했을 것이다.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적어도 미래를 기다리며 살기보다 오늘을 살지 않았을까? 에스트라공은 다시 시인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고도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을 사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주인공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무의미하고도 반복적인 행동이 인생을 견디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아, 무의미하다곤 말하지 못하겠다. 주체로서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면 비로소 유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무의미하고도 유의미한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 타인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사이에 포조와 렉키를 만나 생각을 하고 춤도 추며 시간을 죽이는 게 독자가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들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 해석에서만큼은 주인공들이 나이 든 방랑자가 아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된다. 고도 자체가 삶이다. 고도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듯이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주인공이 그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듯 우리도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낼 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듯. 그들도 그저 고도를 기다린 것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의 관계성도 주목할만하다. 그들은 오랜 친구로 보이고 함께 고도를 기다린다. 조금은 툭툭대며 이만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며 얘기하지만,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구두를 벗겨주고 일으켜주고 노래를 들어주는 서로가 있기에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져와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목을 매자는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같이 잘 죽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두 주인공이 포조와 렉키를 만나니 익숙한 느낌이 들다가도 낯설어지

는 건,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익숙한 누군가가 생각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 나타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사람 사이에는 많은 관계와 감정이 있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정답이 없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댄다. 잘 모르겠다. 어쩔 땐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가도 각자 자신한테 맞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다. 혹자는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할지언정 나는 그들이 바보 같지 않다. 열심히 숨 쉬고 있다. 숨만 쉬는 게 아닌 ‘살고’ 있다. 이 책을 읽고서 어떤 해석을 내놓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렇듯 인생의 해석도 각자 하는 것이다. 소년이 찾아와 고도가 못 온다고 전한다 해도 내일을 기다릴지 다른 곳으로 떠날지에는 정답이 없다. 삶의 방식도 그렇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 삶의 방식을 상상해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누군가는 헛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다 현재를 놓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오늘을 살아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방랑과 방황을 넘나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배회하는 것조차 힘들어 주저앉기도 한다. 이 모든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다. 그걸 가장 강렬하게 느끼기도 했고. 해석의 자유를 만끽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위로까지 할 수 있었다. 틀린 삶의 방식은 없다.

<제7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최우수상)>

도서명	고도를 기다리며
저자	사무엘 베케트
제목	고도를 기다리는 삶
특별한 책을 읽었다. 그 책의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로 사무엘 베케트가 쓴 책이다. 사무엘 베케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그는 나치를 피해 은거해 있는 동안 많은 작품을 집필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그런 그의 상황에 꽤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평소 전쟁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었을 때는 그 기대가 충족되었다.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닌 희곡이다. 그래서 대본의 형식으로 쓰여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형식이 이 작품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희곡은 2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 2막으로 나뉘는데도 달라지는 배경적 특징은 거의 없다. 단지 2개의 막 사이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주 내용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언제부터 고도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오래전부터 고도를 기다려온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달래기 위해 질문하기, 운동하기, 장난하기 등을 할 뿐이었다.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포조와 럭키를 만나고 고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년만이 등장한다. 소년은 고도가 다음에 온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만나지 못한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린다. 책의 내용은 너무 허무하여 ‘내가 제대로 읽은 것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고도는 결국 오지 않았고 내용도 단지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고도는 앞으로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등장인물인 포조와 럭키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 포조와 럭키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조와 럭키보단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아무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끌 것이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 소식을 알려주는 이 책의 소년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기다리고 그 과정이 모여 개인이 삶이 된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의 확실한 의미는 무엇일까? 베케트는 절대 고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고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가 스스로 고도가 누구인지 해석하라는 것이다. 고도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된다. 이 책의 작가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할 때는 나치가 사라진 미래를	

고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도가 큰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 자유, 구원 또는 죽음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이 여러 고도의 공통점은 고도에는 삶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희망 하나만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두렵다. 때로는 잔인하다. 고도를 기다린다는 목적 단 하나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포조와 럭키의 삶이 더 나을까? 럭키는 생각하는 힘을 상실하여 포조의 명령만을 따르고 포조는 눈이 멀게 되었다. 그들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과 함께 고도를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작가도 고도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포조와 럭키를 통해 그것을 경고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남기지 않았고 작품에 대한 정보조차 최소화했다. 나는 작가가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 즉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노력을 지속하라고 말했으리라 생각한다. 작가 베케트는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 고도를 기다린 것이 실패하거나, 무의미하거나,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더라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한 다시 일어나 시도하라고 권유하는 듯하다. 물론 고도를 기다릴지 아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으니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어렸을 적에 읽은 동화 한 권이 생각난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다. 그 책에서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고 다른 삶을 기대하며 애벌레 기둥에 오른다. 그 기둥 끝까지 올라가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간 기둥의 끝에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호랑 애벌레는 날고 있는 노랑나비를 따라가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호랑 애벌레가 애벌레 기둥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삶을 기대하며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것이 고도를 기다리는 두 남자와 닮았다. 호랑 애벌레가 기다리는 고도는 애벌레 기둥의 끝에 오르면서 얻게 되는 지금과는 다른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헛수고를 한 것이다. 그래도 사무엘 베케트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것이다. 고도를 기다린다는 목적이 있는 삶이 호랑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모든 순간 나는 여러 고도들을 기다려 왔을 것이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고도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의 미래이다. 나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아예 안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지금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고도를 기다리지

않아 왔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의심스러웠지만 이 책은 그래도 고도를 기다리는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알려준다. 나의 고도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동력 삼아 다시 도전하여 애벌레에서 나비로 진화할 수 있기를 항상 희망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이 책에 ‘특별한’ 이라는 표현을 썼다. 허무주의적인 이 책의 내용, 등장인물 등 모든 것이 특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람의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되도록 설계된 이 책은 독자 한명 한명을 위한 책이 될 수 있다. 내용이 허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읽어나가거나 직접 연극을 본다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긴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고도를 기다리기만 하는 삶이라고 해서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제도 고도를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내일도 고도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는 모든 과정까지 소중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7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파우스트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목	‘파우스트’ 보다 더욱 ‘파우스트적’인 21세기를 살아가며
파우스트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파우스트의 소재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할 것이다. 명예, 부귀, 젊음, 감성에 대한 욕망을 악마적인 것으로 여기는 파우스트 소재는, 현재까지도 문학, 음악, 연극에서는 물론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티브 중 하나이다. 특히 악마와의 계약이나 혹은 악마적인 힘을 소재로 한 영화는 수없이 많다. 그러한 영화에서는 대부분 등장인물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이나 권력을 얻거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소원을 얻게 되는 그 계약이,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더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파우스트적이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발 하라리’의 저서인 <사피엔스>에 등장한다. <사피엔스>에서는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의 먼 조상이 농업혁명을 통해 결국에는 인류에게 더 많은 노동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만들며,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농업혁명을 ‘인류 최초의 사기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미디어와 교육에서 접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명이자 위대한 발전’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사뭇 이질적인 평가였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파우스트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고, 이것이 내가 괴테의 <파우스트> 속 ‘파우스트,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시작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파우스트’가 누구인가를 알아낸 사람이 있을까. 나는 ‘파우스트’라는 인물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였다. 내가 느낀 첫 번째 파우스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품 내내 파우스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 지식을 탐구하고, 그레트헨과의 사랑에 이어, 궁중에서의 체험, 헬레나를 통한 내적이고 정신적인 체험,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민중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통치자로서의 이념을 두루 섭렵하는 등 끊임없이 방황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갈망하는 인물로 비춰진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그는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에서 보편적인 인류애의 이념을 펼치는 존재로 발전하고 결국 구원까지 이른다. <파우스트>의 초반 부분 ‘신’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대화에서 자신만만하게 파우스트를 유혹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신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니라.”라는 말을 전한다. 이 유명한 문장은 바로 파우스트의 이러한 모습에 빛을 발한다. 파우스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삶이 고통스럽고, 혼란스	

럽던 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 신이 했던 말처럼 ‘선량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에 쫓기더라도 올바른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방황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한 결국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을 나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일깨워주었다. 아마도 파우스트는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매진하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 실패와 절망을 딛고서 줄기차게 노력하는 인간상을 대표한다. 이러한 인간상은 파우스트가 존재하는 그 시대와 그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갈망하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목표를 이루어내는 등 최선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21세기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기에 현재까지도 파우스트는 우리로부터 공감과 감동을 끌어내며,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으로 이어져 오는 것 같다. 내가 만난 또 다른 파우스트는 책임감 없는 맹목적 진보주의자였다. 이는 내가 처음에 만난 파우스트의 성실성이 한 발짝만 더 가면 인간의 야심이나 오만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발전지상주의적인 모습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그의 간척사업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파우스트에게 내면의 목소리가 ‘근심’의 형태로 왔는데 그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자신의 간척사업에만 몰두한다. 결국, 근심은 파우스트의 두 눈을 멀게 만든다. 두 눈이 먼 그는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를 수로를 확장하는 소리로 들으며 자신의 이상적인 세상을 상상하며 “순간아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가 눈이 먼 것은 맹목적 진보주의자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으로 느껴졌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는 다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었으며, 그 파괴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근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익과 편리만을 쫓아가다 미래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간척사업 진행 과정에서 파우스트는 그 거대한 땅을 다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티끌 같은 보리수 몇 그루에 괴로워하며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보리수 언덕의 주인이었던 노인들을 그곳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했고, 파우스트는 본의 아니게 노인들을 죽이고 만다. 그는 전과 다르게 점점 주변의 작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발전을 강박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현대에서 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위험과 비윤리성을 닮은 듯 보였다. 우리 대부분 실제 내용도 모르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당면한 위기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되리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은 구세주이긴커녕 사실은 인간존재와 그 세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악마의 기술’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생태계의 붕괴와 다양한 환경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건강과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바꾸어놓고 있으며 이러

한 질병은 모두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 대한 업보이다. 그런데도 몇몇 과학기술자들의 무조건적인 지식에 대한 욕망과 윤리적 무감각과 무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경쟁 속에서 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경쟁력 제일주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국가권력의 맹목적 성장주의가 결합하여 너무나 위험하게도, 과학기술은 무비판적으로 무작정 권장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전통적인 관계는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며 고마워했던 인간은 자연의 왜소한 존재였던 반면, 근대에 오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전도되기 시작하며 자연이 대상화, 객체화되고 개발의 대상이 되어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이로써 동시에 발전한 인간의 야심과 오만을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 의무를 지닌다.

‘파우스트적이다’라는 표현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표현하기에 가장 완벽한 단어이다.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추구하며 전보다 더 나아져야 하기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에 거의 강박적이다. 나 역시도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그저 목표 의식 없이 노력해왔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식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러한 지식 추구의 한계를 느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 만약 나에게도 악마의 유혹이 다가온다면, 파우스트와 다를 바 없이 계약을 승낙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파우스트로부터 얻은 깨달음은 지식이나 정욕적인 사랑, 명예, 예술 등 무언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어떠한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 최선의 삶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곧 이 책에서는 ‘구원’으로 표현되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 중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소개할 때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항상 선을 만들어내는 힘을 일부’라고 묘사한다. 나는 이 표현을 보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의 방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동시에 진리, 즉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방향은 우리의 노력의 증거이며,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계기로 인류의 행보가 지나치게 이기적이며, 맹목적인 선택은 아니었는지를 성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책 속 주인공인 ‘파우스트’보다도 더욱 ‘파우스트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못한 채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의 삶에 악마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멈추거나, 두려워하지 말자고 21세기의 파우스트들에게 전하고 싶다.

<제7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관점을 디자인하라
저자	박용후
제목	객관식(客觀式)이 아닌 주관식(主觀式)으로
객관식(客觀式) 인생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손님(客)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닌 손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 나 또한 이러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주체적으로 답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놓여있는 안정적인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다. 이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아닌 타인의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20년 동안의 인생이 제3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종종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자기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실패로 인한 자괴감에 휩싸여있는 것보다는 좌절을 발판으로 삼아 노력한다면, 보다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손님의 위치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중요시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나열하고, 단어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라고 말한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에게 소중한 가족, 친구, 성적, 돈, 취업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정형화된 문제에만 익숙해져 있어 내 생각을 말하거나 쓰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내가 이 단어를 좋아하고 희망해왔을 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관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부른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빌리는 대신 전자책 어플로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의 코드가 ‘시나브로’ 바뀐 것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부터 카메라를 쓰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도서관을 가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변화해 나 자신의 코드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성의 이끌림에 따라 한곳을 보고 달리는 것을 멈추어보려 한다. 잠시 멈춘다는 것은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멈춰 서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되짚어보며 관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언가에 대해 규정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가두어진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생의 멘토 또한 한 사람으로 고정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	

성되면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또한, 멘토를 추앙하면서 자신의 꿈의 깊이와 넓이를 한정할 수도 있다. 멘토를 추대하며 따라 하는 것은 그저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을 따라 하는 행위가 행복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모방으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순식간에 공허함에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타인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인물상을 설정한 후,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유명 백화점에 입주한 매장 업주는 성공한 사람이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된장찌개를 파는 식당 점주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분간 고민했다. 유명 백화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을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대표적인 고정 관념 중 하나다. 시골의 작은 식당이라도 손님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인은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머리가 멍했다. 한국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기준은 명품 가방, 강남에 위치한 넓은 집, 남들이 원하는 직업의 소유 여부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사회가 만든 성공의 틀에 갇혀 선불리 타인의 성과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고정 관념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돈을 얼마가 벌든, 무엇을 입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질문에 대한 ‘답’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타인을 평가한다. 그러나 타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자는 이를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는 존재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15년간 갇혀 있던 최민식이 자신을 감금했던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주인공 최민식의 대사인 “누가 나를 가두었을까?”에 집중한다. 그러나 유지태가 ‘최민식을 감금한 이유’가 아니라 ‘최민식을 풀어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자 모든 실마리가 풀렸다. 이처럼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질문의 관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질문이 틀렸다면 절대로 그 상황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고,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수용만 하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의심을 반복함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살아있는 기계를 만들지 말고, 인간을 만들라.”라고 말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계와 다름이 없다는 의미이다.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고정 관념

을 타파하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신만의 관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끔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시나브로 변화하고, 한국 사회의 고정 관념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뛰어오를 수 없다. 곳곳하게 털고 일어나야 창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 중 일부가 아닐까? 관점의 확장을 통해 남은 인생을 보다 주관식(主觀式)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제7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고도를 기다리며
저자	사뮈엘 베케트
제목	당신도 고도를 기다리시나요?
사람들은 평소에 수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산다. 취업 준비생은 기업의 합격 문자를 기다리면서 살고,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린다. 입대한 자식을 둔 부모님은 자식이 안전하게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의 애뜻한 카톡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그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왜 기다리는가? 꼭 기다려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가? 혹시,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주려고 한다. “그만 가자.”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에게 말한다. “안돼, 고도를 기다려야지.”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에게 말한다. “참, 그렇지.” 에스트라공은 납득한다. 놀랍게도, 이 짧은 대화는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의 핵심 내용이다. 희곡에 등장하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양상하게 뼈만 남은 나무 한 그루 아래에서 ‘고도’를 기다린다. 이들은 고도를 기다린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들 자신도 고도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주 오랫동안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고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이 이 양상한 나무 아래가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오랫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려온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들에겐 고도를 기다리는 건 습관이 되어버린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다. 고도는 누구인가? 고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도는 신이자, 희망, 목표, 즐거움, 사랑, 행복, 구원자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이 불분명한 고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로 고도의 기다림을 납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도로 힘들다. 왜냐하면,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를뿐더러, 고도가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고도는 삶과 죽음의 기준이다. 그들은 고도가 온다면, 삶을 살아갈 것이라 말하고,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이 양상한 나무에 목을 매달 것이라 말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죽기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린다.	

영원한 시간 속의 기다림에서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한다.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욕하고, 장난을 치고, 춤을 춘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들의 기다림이 지쳐갈 때쯤, 등장하는 사람은 고도가 아니라 고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년’이다. 소년은 그들에게 오늘은 고도가 오지 못하고, 내일은 고도가 꼭 올 것이라고 전하고 사라진다.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앞에, ‘포조’와 ‘럭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럭키는 목에 밧줄이 걸려있으며, 포조의 짐가방을 들고 있다. 포조는 밧줄과 채찍으로 럭키를 조종하며,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포조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만나며, 그들에게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포조는 그들의 질문에든 처음부터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함을 강요한다.

다음 날, 어찌 된 영문인지, 눈이 멀어버린 포조는 럭키와 함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포조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만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다시 반복적으로 럭키를 조련하며, 전날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포조와 럭키가 떠난 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앞에 또다시 고도의 소식을 전하는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은 그들에게 고도는 오늘 오지 않을 것이며, 내일은 꼭 올 것이라는 말은 남긴 채 사라진다. 결국, 또 오늘 하루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열심히 고도를 기다렸지만, 고도를 만날 수 없었다. 이후, 결심한 듯이 서로는 대화를 나눈다.

“그만 갈까?”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에게 말한다.

“그래.” 에스트라공이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하염없이 고도를 만나기로 한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의 내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또다시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다. 포조와 럭키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관심 없으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처음 만나는 행동을 하겠지만, 어제와 똑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고도의 소식을 전하는 소년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고도는 오늘 오지 않을 것이며, 내일은 꼭 올 것이라고 전해 줄 것이다.

그들의 무의미한 대화와 무기력한 태도, 알 수 없는 행동들은 희곡을 읽는 우리가 웃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에스트라공은 구두 한 짝을 벗어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리며, 블라디미르는 주머니에 순무를 넣고 다닌다. 포조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과장되게 말로 표현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럭키의 생각들은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렇기에 「고도를 기다리며」는 희극 속 비극, 즉 희비극이라고 평가받는다. 또한,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존재를 지속해서 고찰하며,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탐구를 제시한다. 이는, 이 작품이 부조리극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하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포조와 럭키는 대조적이다.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는 매일 매일을 이상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과 마주하며 바쁘게 사는 현실적인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도’는 각자 다르다. 우리는 어쩌면,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고도를 위해 각박하고 냉혹한 세상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조와 럭키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이상적인 나만의 고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만의 고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 나무 아래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말을 하며, 고도를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기억을 망각하는 인간이다. 어쩌면, 우리만의 고도를 기다리다 지쳐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잊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지속해서 탐구해야 하고, 각자의 고도를 찾아 나서며 삶의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희곡 안에서 블라디미르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생각하지만, 결국 망각하며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에 나는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나는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내 친구 에스트라공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까? 포조가 그의 짐꾼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말하게 될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다시 언어맞은 얘기나 할 테고 내게서 당근이나 얻어 먹겠지...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앉아 무서운 산고를 겪고 구덩이 밑에서는 일꾼이 꿈속에서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겠지. 그리고 말하겠지. 저 친구는 잠들어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자게 내버려 두자고. 이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지껓었지?”

우리는 지금처럼 눈코 뜰 새 없는 현대 사회를 현실주의적인 포조와 럭키처럼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이상주의적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자신만의 고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좋다. 각자의 고도는 다르겠지만, 고도의 기다림은 삶의 희망이자 목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만의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스스로 정의해보고,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수많은 현대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고도는 누구인가? 당신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7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신곡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
제목	사후세계의 존재
선과 악 그 사이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 책, 바로 [단테의 신곡]이다. 단테의 신곡은 일인칭 시점으로 단테가, 길잡이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전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신곡에서 아홉 개의 구역으로 분류된 지옥은 영원한 슬픔과 괴로움의 세계를 나타내고, 일곱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연옥은 구원 받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곳이다. 그리고 열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천국은 인간들이 하느님에게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말을 기쁨으로 끝이 난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간판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문장만 보았을 때는 지옥이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희망, 즉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문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경우에도, 꿈과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죽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옥 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을 나태하게 살지 않으며,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자신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큰 죄는 아니더라도 작은 죄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 선의의 거짓 말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거짓말은 하나의 죄가 된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욕심을 마음에 품는 것은 탐욕의 죄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죄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죄의 무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곡의 지옥은 하나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닌 죄의 무게에 따라 총 9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9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지옥 중 2단계 지옥이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다. 2단계 지옥인 애욕 지옥은 욕망에 바람에 휩쓸려 일탈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곳이다. 이곳에는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미인계를 쓴 클레오파트라, 단테 시대의 유명했던 치정극의 주인공 파울로, 프렌치스카 등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다. 파울로와 프렌치스카는 “비참할 때 행복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닮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굴곡을 흔히 겪고는 한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반면에	

예상 밖으로 흘러가거나 꼬이기도 한다. 이럴 때 보통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 그랬었지” 등 과거를 회상하는 대화를 자주 입 밖으로 내뱉거나 속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과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록 자신이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느끼고 알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옥 편의 내용 중 의아했던 부분도 존재했다. 바로 8단계 지옥인 사기와 위조 지옥이다. 위조지폐범의 경우에도 8단계 지옥에 속해있었는데 어째서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일까? 나의 경우에는 위조지폐범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높게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책을 읽으면서, 연옥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연옥의 뜻을 찾아보니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라고 한다. 연옥 편에서는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대지의 중심에서 빠져나와 다시 햇살을 받으며 연옥의 불을 저장한 산에 이른다. 연옥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속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찰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연옥의 구조는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각 층은 일곱 가지의 대죄, 즉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에 할당되어 있다. 이편에서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서두르는 것이 아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별과 빛이라는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천국 편. 지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과 함께 희망이 없는 곳이었다. 다음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오니 비로써 별이 보였던 연옥. 즉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희망 꿈 미래 비전 등이 가득 차 있는 천국 도착하게 된다. 천국 편의 내용 중 “축복받은 몸을 만나 빛나는 것은 행복이 살아 있는 눈을 통해 빛을 내는 것과 같지요” 라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지옥에 관한 것보다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지옥에 관한 소재를 찾기는 쉽지만 천국의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책을 읽기 전과 후에도 계속 남아있던 궁금증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종교를 믿고 있는 몇몇 사람은 현생에 덕을 쌓아야지만 내세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낸다면 사후세계 유무와 관계없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단테의 신곡은 윤리의 필요성, 선과 악의 개념, 신앙, 사랑, 인간 공동체의 연대, 영원한 생명의 기쁨, 독창성 등의 내용이 잘 어우러져 있는 책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겪으며 인간의 가치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참다운 길인가를 제시해 주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7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파우스트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목	어쩌면 당신에게도 파우스트가
누구나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외쳤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독자의 현재 혹은 과거의 상황과 책의 줄거리가 비슷해서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서를 하면서 독자가 자신을 책에 이입시키다 보니 책의 내용이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낀 것일 수도 있다. 나의 경우에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등장했던 몇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괴테가 만든 파우스트라는 도서에 국한되는 모습만이 아니라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내 가슴 속엔 아아!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와 떨어지려고 하네. 하나는 음탕한 애욕에 빠져 현세에 매달려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과감히 세속의 티끌을 떠나 숭고한 선인들의 영역에 오르려고 하네. (파우스트 1 본문, 69p) 파우스트가 정말 두 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아’, ‘초자아’, ‘자아’라는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초아는 쾌락 원리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따른다. 그리고 초자아는 이상적인 면모를 따른다. 파우스트의 머릿속에서는 애욕 같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아와 선인들의 영역에 오르려 하는 이상적인 면모를 추구하는 초자아가 갈등하고 있다. 초자아와 원초아가 추구하는 다른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파우스트를 고뇌하게 했다. 이런 초자아와 원초아의 갈등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대학생들 예시로 들어보자면, 수강하는 과목의 수업을 듣는 여느 학생의 머릿속에서도 초자아와 원초아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수업을 듣는 도중, 학생의 머릿속에서 원초아는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지금 당장 자서 너의 수면욕을 만족시켜.” 이에 초자아는 이리 외칠 수 있다.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학생은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지.”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초아는 책 속에서 자기 모습을 파우스트를 통해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도와다오, 악마야, 이 공포의 시간을 단축시켜다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당장 벌어지게 해라! 그녀의 운명이 내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 나와 함께 멸망해도 좋다! (파우스트 1 본문, 183p) 이 대목에서 파우스트의 원초아는 그레트헨과 잠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성적 욕구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성적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연히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져 내리게 하면서까지 성적 쾌락을 좇는 행위는 초자아가 추구할 만한 이성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랑을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다. 인간에게	

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인생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자유를 위협받는 느낌을 받아 반발심을 형성해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심리를 ‘리액턴스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심리학자 Saharon Brehm이 설명한 효과, ‘reactance’는 물리학 분야에서 전기의 저항을 의미,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애야, 눈물을랑 거두어라! 네가 명예를 버렸을 때, 내 마음의 충격은 정말 컸다. 나, 죽음이란 잠을 통해 군인답게 씩씩하게 하느님께 나아가겠다. (파우스트 1 본문, 203p) 처녀성은 당시 마을에서 미혼인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지켜야 했던 존재였다. 처녀성을 깨었다는 이유로 참회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을 주민 여성의 입이 근거가 되어준다. 심지어 발렌틴은 처녀성을 명예로 표현한다. 동생이 처녀성을 깨었다는 이유로 혈육이 죽음을 불사할 만큼 여성의 성교에 관한 선택권은 박탈당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의 그레트헨이 행했던 파우스트를 향한 사랑에는 리액턴스 효과가 개입했다. 마을의 사회적 분위기는 미혼 여성인 그레트헨에게 암묵적으로 성교의 행위를 금지했고 그녀는 성교의 자유를 위협받아 반발심을 형성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들과 반대되는 선택을 그녀는 한 것이다. 그레트헨의 사랑은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한다. 그녀의 사랑을 단지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학자인 파우스트에게 이용당한 인간의 순수 무책함을 표현한 형태의 사랑이 아닌, 누군가에게 구원받아야 하는 소녀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발산한 그 모든 순간이라고 봐도 되는 시야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Freude und Schmerz gehören zusammen.” 기쁨과 고통이 함께 찾아온다는 독일어이다. 희곡이라는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파우스트라는 책에 사용되었던 문체들과 미사여구들이 독서를 하면서 낯설었다. 하지만 내가 책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다짐조차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열정을 가져보자며 나를 다독이면서 이후 파우스트를 읽어가다 보니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의문들은 나에게 의심을 안겨주었다. “파우스트 속 모습들은 실제 사람들의 모습이라 명확히 말할 수 있나?”

그 의심을 하나의 주장으로 바꾸는 감상문을 쓰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무언가 다른 것 같다. 그 누가 이런 내 생각을 반대하는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는 감상문을 쓰는 것이 뭐 대수라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글을 쓰기 위해 샤프를 들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의 전원을 켜며 책 속 표지의 인물을 응시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문학과 관련된 일련의 소중한 성공 경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다른 문학을 접할 때 양면의 칼날처럼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도움은 어쩌면 비극적일지도 모른다. 책을 통한 너무나도 빠른 독자의 감정의 인지, 동요, 확산은 누군가에게겐 폭력일 수도 있다.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무언가 고통스럽고 공허한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책을 통해 너무나도 다른 감정, 시야, 사고가 인간에게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것이다! 그 폭풍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눈물이 바다를 이뤄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든, 우리는 그저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한다. 어디로 말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 각자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회상해야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단지 인간의 제한 없는 탐욕만을 다룬 작품이 아니다.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등장인물들의 괴로움, 고뇌, 그리고 소망을 나타내는 행동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도회처럼 독자들에게 무한한 영감이라는 연회장의 분위기를 선사해 줄 것이다. 파우스트 속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단지 흥미를 위한 유희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존재 자체를 탐구하게 해 주는 열쇠로 보는 차도를 우리는 건널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경험이나 특정한 자신만의 성향이라 생각했던 모습들을 책 속 인물들과 접목시켜 봄으로써 보다 새로운, 넓은, 광활한 시야를 가지는 경험을 소유하게 된다.

<제7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신곡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
제목	신곡을 읽고
“비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일만큼 괴로운 것은 없어요” 이 구절은 신곡의 지옥 편에 나온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었다. 흔히 생각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준 구절이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지옥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옛날에 신곡이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어려워서를 읽기를 중단했었다. 맨 위에 적은 첫 문장은 과거에 인상깊어서 일기장에 적어둔 문장이다. 끝까지 다 읽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있고 리드미 독후감 공모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단테의 신곡을 선정하여 읽었다. 다만 책을 읽는 동안 한 가지 아쉬움이 계속 남았는데 신곡이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는 배경지식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켰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지식이 없어 읽는 내내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파악한다기보단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내용을 곱씹어보기로 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총 세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작가이자 주인공인 단테가 가장 바닥인 지옥부터 가장 높은 천국까지 순례를 하며 죽은 사람들이 사후에 어떤 곳에 머무르는지 상세히 적어 놓았다. 지옥과 연옥에서는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와 동행을 하며 단테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도 많이 나온다. 나도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읽고 위로를 받았던 문장 구절이 있다.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네. 지레 겁을 먹고 발걸음을 멈춘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야. 마치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둔한 짓이지. 모험에는 고난이 따르는 법이라네. 그게 자네가 살아온 저 세상의 진리 아니던가. 여기서도 그 진리는 마찬가지로네. 그러니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지 말게나. 그건 부질없는 짓이거든. 자넨 이제 담대해져야 하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던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흔한 충고일 수 있지만 모험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말이 와닿았다. 무슨 일을 하던지 고난이 따라오는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새삼 새롭게 느껴졌고 걱정을 밥 먹듯이 하는 나에게 담대해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됐다. 책을 읽으면서 세 개의 편중에서 유독 지옥편에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깨달은 점도 많았다. 먼저 가장 먼저 든 의문점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가?’ 였다. 지옥에는 탐욕에 눈먼 자들, 도둑, 사기꾼, 거짓말쟁이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있다. 사	

실 이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사랑의 자유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에 혼란이었다. 예수 탄생 전에 태어난 사람과 동성애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만한 죄를 지은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

두 번째로 든 의문점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가?’ 였다.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지 궁금증이 들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글을 계속 읽다가 해결되었다. 단테가 벌을 받는 망령들을 보며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 베르길리우스는 말했다.

“원래 죄는 먼지처럼 가볍다네. 그래서 그 무게를 알기가 어렵고 무게 또한 느끼기 어렵지. 그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망령들은 자신의 몸보다 죄가 몇 배나 무거워질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는 이곳으로 끌려와 저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세.”

나는 ‘원래 죄는 먼지처럼 가볍다네.’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나도 느끼지 못하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지 두려움도 있었고 죄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하는 문장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든 의문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떡하지?’ 였다. 요즘 고려 광종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 ‘달의 연인-보보경심려’를 다시 보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왕족인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익히고 사람들과 심지어는 형제까지 죽여야만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스스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신곡의 지옥편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 자칫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한 것도 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천국편에서도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짓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빵을 훔친 장발장도,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홍길동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지은건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들 모두 죄를 지은 것은 맞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책을 읽다보니 나도 모르게 지옥에서 벌을 받고있는 죄인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봤던 것 같다. 드라마에서 악역이 죽거나 벌을 받으면 거기에서 불쌍함과 가련함을 느끼는 것과 같았다. 또한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신의 엄정한 심판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만큼 불경한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문장을 읽고 선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다. 앞에서는 죄가 먼지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젖값은 받아야하므로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옥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놓칠 수 있는 죄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살, 아침을 하는 것, 전쟁을 일으킨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한 것,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깨뜨린 것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점들은 뒷부분인 연옥편과 천국편을 읽으면서 다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연옥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어린 새는 유혹을 피할 수 없지만 날개가 달려 성인이 된 새는 능히 유혹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짓고 나쁜 유혹이 오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가져 이를 잘 피해가야만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주로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어서 종교가 없는 나에게 거부감도 있었고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신곡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 이는 책의 구절을 빌려 명쾌하게 한 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네.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삶만큼 더 나은 삶은 없을 것이라는 게 내 결론이다. 이 책은 살면서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인 것 같다.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7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파우스트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목	불완전한 나에게 괴테가 주는 위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절대적인 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연 인간은 언제나 선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가끔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내가 미울 때가 많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제쳐놓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짜증을 내 버리는 일 등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싶은 일들을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 나도 이런 내가 싫을 때가 많다. 가끔은 나의 악한 부분을 떼어내어 깨끗하게 세탁해 버려놓고 싶다. 나도 이럴 때가 많은 것처럼 타인들 또한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사회에서 항상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인들마저도 일 분 일 초 느끼는 감정들이 모두 도덕적이고 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의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이다. 악마와 신이 그를 두고 내기를 할 만큼 파우스트는 학문에만 뜻이 깊었던, 삶의 목표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일만큼 인간세상의 탐욕과는 거리가 먼 학자였다. 신은 그를 믿고 악마와 내기를 했고, 결국에는 옳은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파우스트도 그레헨의 오빠를 죽이고, 이후에는 자신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부부를 이주시키려고 하다 결국은 죽게 한다. 그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을 받아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와 같이 마냥 선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파우스트의 행동은 엄격한 기독교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고, 파우스트가 구원받는 장면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괴테도 이를 인지하여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이 기묘한 물건에 바친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것” 이라고 하며 파우스트를 출판하지 말라는 뜻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파우스트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그레헨을 열심히 사랑했고, 황제를 열심히 도왔고, 생의 마지막에는 간척사업으로 마을도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악마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학문에 대한 끝없는 탐구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지식(학문), 사랑(그레헨), 명예(왕의 신임), 예술(헬레나) 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파우스트는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그의 그러한 노력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나는 그래서 파우스트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파우스트를 읽었을 때는 부끄럽지만 고전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작가 괴테가 살던 시대에 이러한 부도덕	

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도 되는지부터가 의문이었고, 그 의문 뒤에는 파우스트가 구원받는 결말을 설정한 작가 괴테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런 의문들은 나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해소되었다. 파우스트를 읽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구원받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실존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이다. 작가 괴테는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이러면 작가가 출판을 꺼리면서도 파우스트를 구원한 이유도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파우스트가 좋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도 열심히 살면 괜찮다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다. 그저 하루 하루 열심히 살다보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책을 읽으면서는 방대한 양과 처음 접해보는 희곡이라는 형식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다 읽고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오랜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었다. 책을 읽으면서 파우스트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엄청난 오해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비록 과제를 할 때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면 참지 않고 따박 따박 말대답도 잘 하는 선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과제를 어떻게든 해서 제출하고,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며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기도 하며 선한 행동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 이것은 참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파우스트를 보고 느꼈다. 내가 마냥 선한 존재였다면 항상 선한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의 악을 어떻게든 누르고 결국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흰과 검의 존재가 서로가 있기에 더욱 극명한 것처럼 말이다. 내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 준 괴테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감상을 마친다. 약 이백 년 전의 괴테의 위로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닿아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때 책을 출판하지 말라던 괴테의 당부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나에게는 행운이었다.